여래장 사상·8식 중심주제

능가경 ㊦

글쓴이

남수영
〈동국대 강사〉

경전 속의 禪 사상 23

대혜보살 상대로 '정법·설법건립' 설명
초기선종 '능가종'이라 할만큼 비중 커

흔히 선종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을 주장하여, 경전의 가르침을 배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종의 조사들이 모두 경전의 가르침을 모두 무시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살펴 보았던 바와 같이 보리달마(菩提達磨)는 〈능가경〉을 중시했고, 혜능(慧能)도 〈금강경〉을 중시했다. 그러므로 선(禪)이 교(敎)를 전적으로 배격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일찍이 보리달마가 중시했던 〈능가경〉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능가경〉은 제4 불심품(佛心品)에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의 수행을 '정법을 건립하는 모습(建立正法相)'과 '설법을 건립하는 모습(建立說法之相)'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혜(大慧)여, 어떤 것이 '정법을 건립하는 모습'인가? 말하자면 자신이 안에서 증득한 뛰어난 법의 모양이니, 문자와 언어와 장구(章句)를 여의고, 능히 여러 수행의 단계에서 번뇌가 없는 올바른 계(戒)를 취하고, 모든 외도의 허망한 각관(覺觀)과 모든 악마의 경계를 떠나며, 일체 외도와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여실하게 수행해서 스스로 안에서 깨달은 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대혜여, 이를 '정법을 건립하는 모습'이라고 하느니라. 대혜여, 또 어떤 것을 '설법을 건립하는 모습'이라 하는가? 말하자면 9부(部)의 여러 가지 교법을 설하여 '동일하다, 다르다, 있다, 없다.' 하면서 상(相)을 취하지 않도록 하되, 먼저 교묘한 방편을 말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좋아하는 곳에 들게 한다. 중생이 믿는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을 설하는 것이다. 대혜여, 이를 '설법을 건립하는 모양'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정법을 건립하는 모습'이란 곧 선에 해당하고, '설법을 건립하는 모습'이란 곧 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능가경〉이 선과 교를 수행의 두 가지 방편으로 간주했으며, 일방적으로 교를 배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능가경〉의 이와 같은 관점은 보리달마의 이입사행론(理入四行論)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보리달마는 이입사행론에서 "이입(理入)이란 경전에 의하여 도(道)의 큰 줄기를 알고 사람은 모두 범인(凡人)도 성인(聖人)도 평등하게 진실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다만 외적인 망상에 의해 덮혀지고 숨겨져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망상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가 외연히 벽관(壁觀)에 머물면 자타(自他)도 범성(凡聖)도 하나이다. 굳게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문자(文字)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진리와 일치하여 마음에 의식하는 것도 없고 조용히 안정되어 작위(作爲)가 없는 것을 이입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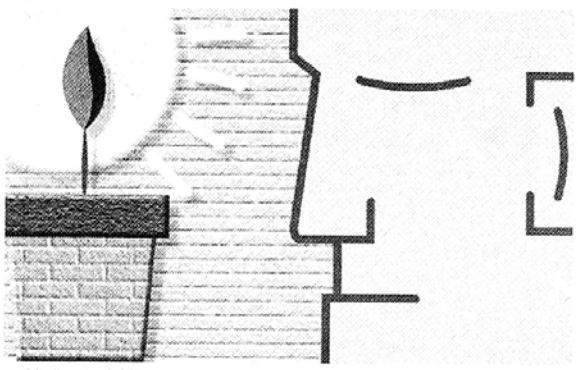
여기서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도의 큰 줄기를 알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곧 교에 해당하고, '벽관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문자(文字)에 구애되지 않으며, 진리와 일치하여 마음에 의식하는 것도 없고 조용히 안정되어 작위가 없는 것'은 곧 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리달마가 말하는 이입은 선과 교를 함께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보리달마의 벽관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자. 여래장 사상에 따르면 불성(佛性)은 번뇌에 덮혀 있어도 번뇌에 물들지 않으며, 번뇌가 사라지면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한다. 그것은 구름이 걷혔을 때 태양이 스스로 밝게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보리달마의 벽관은 바로 이 여래장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리달마의 벽관이란 곧 벽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나 먼지를 막는 것과 같이, 본래 청정한 마음 속에 객진(客塵) 번뇌와 망념(妄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선법(禪法)을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과 교가 서로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여래장 사상이 없다면 보리달마의 벽관은 자신의 이론적 기반을 잃어 버리고 말 것이며, 반대로 보리달마의 벽관이 없다면 여래장 사상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이 달마의 벽관에 있어서 교와 선은 견성성불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위해 서로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무턱대고 선을 강조하고 교를 배격함은 옳지 못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선과 교는 분명히 그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수행의 방편으로서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선교합일(禪敎合一)과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한 고려 선사 지눌(知訥, 1158~1210)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과학산책 식물의 의식㊥



인간과 감정 공유
기억력 · 자기방어 행위
크레브 백스터 발견

식물에게도 인간의 의식과 같지는 않지만 분명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분야의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크레브 백스터(Cleve Backster)의 발견을 살펴보자. 그의 발견 중 일부는 백스터 현상이라고 명명되어 있다.

백스터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전문가였다. 1966년 백스터는 자신의 학교에서 연구에 몰두하던 중 자신의 방에 놓여있던 열대식물인 드러시너와 거짓말 탐지기로 실험을 하고 싶어졌다. 거짓말 측정기로 사람의 반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한다. 백스터는 식물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식물을 위협하기로 결정했다. 방법은 전극을 연결시킨 잎사귀를 불로 태우는 것으로 정했다. 그가 불을 떠올리면서 성냥불을 가져오려 움직이기도 전에 측정기에는 강렬한 반응이 나타났다. 마치 식물이 백스터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그가 성냥을 가져와 거짓으로 태우는 시늉을 하자 측정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식물이 마치 인간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또한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해 온다거나 갑자기 개가 나타나는 등의 갑작스런 위협에도 반응을 보였다. 그에 의하면 식물은 다른 식물들의 출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동물이나 인간이 나타나면 바짝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다. 또한 식물도 인간처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기절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자기 방어의 행동을 한다. 이 현상은 식물을 태워 그 성분을 분석하는 과학자 앞에서 식물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식물을 의도적으로 기절시키거나 최면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미국 인디언들이나 티벳의 사냥꾼들이 제물을 사냥하기 전에 의식을 거행하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여 그 고기에 공포로 인해 생기는 해로운 화학물 생산을 방지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전통은 유태교에서도 볼 수 있다.

백스터는 식물이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제비뽑기를 하여 한 사람에게 남이 모르게 식물 두 그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한 그루의 식물을 뿌리째 뽑아 버리게 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한 사람씩 방에 들어가게 하고 뽑히지 않은 식물의 반응을 살펴 쉽게 범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식물이 일종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으로 인식되었다.

식물들은 유대를 갖게된 사람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감정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백스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스톱워치를 가지고 나가 자신의 행동과 시각을 일일이 기록하여 돌아와 식물의 반응을 기록한 종이와 비교하여 보았다. 놀랍게도 식물의 반응을 기록한 종이는 백스터의 다양한 감정들을 비슷하게 그려내었다. 또한 1,120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식물의 주인이 비행기 착륙시 느끼는 스트레스를 식물도 느끼는 것으로 검류계의 기록이 나왔다.

난초를 키워 본 사람들은 식물에 칭찬과 관심을 쏟아야 잘 자란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사실 난초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 심지어 우리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기에는 미약하지만 식물들 또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와 많은 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의식의 입장에서는 동물, 식물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④

소(牛)의 흔적 ①

"불법은 '지금 여기서' 찾을수 있고 부처는 그대 마음속에 있다"

마하 부아스님은 제자들을 단련시키는 일을 수행의 하나로 중시하고 비구로서 계율을 잘 지키는가, 사원의 규정과 단체 생활에 잘 복종하는가를 꼼꼼하고 자상하게 감독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서양인 승려에 대해서는 마치 특별 대우를 하는 자식처럼 한 곳에 머무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스승을 찾아가도 좋도록 허용해 왔다. 항상 그러하듯이 누가 떠난다고 해서 법석을 떠는 일도 없고 특기할 만한 행사도 없다. 법(法) 안에 사는 삶이란 바로 그 곳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것이다. 마하 부아스님은 "여기에 온 사람도 없고, 간 사람도 없다."라고 할뿐이다.

다른 스승을 찾아갔던 제자가 1년 후 다시 돌아왔을 때, 마하 부아스님은 그 곳에 새롭고 훌륭한 법이 있던가를 물었다. "아닙니다. 새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여기 파 반 테드 사원에서도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법은 언제나 바로 여기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더군요."

그리고 나서 그 서양인 비구는 마하 부아스님의 서양인 제자 가운데 최고 상수인 사니사로 스님의 요사로 찾아가 그가 겪은 일들과 모험담, 새로 깨달은 것들, 수행상의 거창한 통찰 지혜 등에 관해 늘어놓았다. 사니사로 스님은 빙긋 웃었다. "아 참 놀랍네요, 놓아야 할 것이 또 생겼군요." 그 뿐이었다.

그래도 서구인들은 끊임없이 왔다가 또 떠났고 결국 이런 교훈을 스스로 배우게 되었다.

완벽한 삶과 완전한 스승을 찾아 이곳 저곳 기웃거리며 다니는 한 영국인 승려가 파반테드 사원을 찾아 수계했다가 환속하기를 여러 번 거듭했다. 마침내 마하 부아스님은 그를 향해 꾸짖었다. "자기 바랑 속에 개똥을 넣고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냄새가 고약하다고 트집이군."

또 절에 들어왔다가 다시 직장으로, 유럽으로, 약혼녀에게로 그리고 다시 절로 왔다갔다한 다른 영국인 스님이 어느 날 마하 부하스님의 요사에 왔다. 마하 부아스님은 대중이 모인 곳에서 말했다. "이 사람 수염 달린 거북을 찾고 있는 모양이다. 얼마나 더 다녀야 그 거북을 만나게 될꼬?"

또 어느 서양인 승려는 사원 안의 생활에서 오는 불만을 이기지 못하고 마하 부아스님에게 가서 떠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수행이 힘든데다 대중 생활에 자신을 숙이고 들어간다는 것이 그로서는 쉽지 않았던지 그는 드디어 주변의 모든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저 스님은 말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염불은 왜 해야만 합니까? 혼자 따로 명상 좀 더하면 안됩니까…" 그는 될대로 되라는 듯이 마하 부아스님에게 다그쳤다. "스님도 뭐 별로 깨달은 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아닙니까. 어떤 때는 무섭게 하다가 어떤 때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스님이 깨친 분이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마하 부아스님은 그 말에 한바탕 웃고, 그러한 그의 태도에 젊은 스님은 재미있으면서도 한편 화도 났다. "자네 눈에 내가 깨달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다행이야. 그대가 깨달은 사람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틀에 내가 들어 맞았더라면 자넨 아직도 부처를 자기 밖에서 찾는 일에 매달려 있었을 테니까. 바깥쪽 어느 곳에도 부처는 없네. 부처는 그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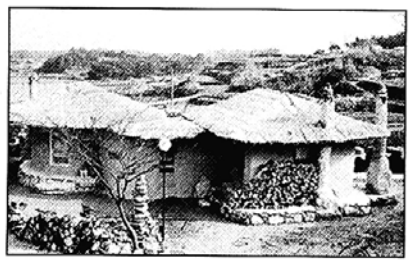
그 스님은 절을 올린 다음, 진정한 부처를 찾기 위해 자기방으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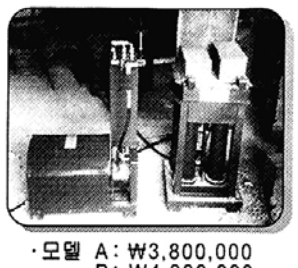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진리의 섬에서 파도소리를 觀하며,

제6차 송광사 '송광암' 여름 수련회 안내

거금도 섬에 있는 송광암은 고려시대 중엽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 창건하신 참선수련 도량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인 "깨치기 전은 참수행이 아니다"라는 정혜결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청정한 남해 바다에서 파도소리를 관하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 련 일 정 표 ●
7월 22일 ~ 8월 22일까지 3박 4일(목~일)

차수	날짜	모집인원	연령	회비
1차	'99.7.22~25	30명	16세~60세	5만원
2차	7.29~8.1	30명	16세~60세	5만원
3차	8.5~8.8	30명	16세~60세	5만원
4차	8.12~8.15	30명	16세~60세	5만원
5차	8.19~8.22	30명	16세~60세	5만원

1. 수련내용 : 묵언, 오후불식, 부처님 호흡법, 활구참선 화두법, 수심결강의, 좌선의,108배, 香功(선체조), 행선(금장해수욕장, 적대봉, 용두봉)
2. 접수요령 : 이름, 주소, 성별(남 · 여), 주민등록번호, 직업, 종교, 수련경험, 희망차수, 참가소견을 적어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수시접수)
3. 준 비 물 : 간편한 차림, 세면도구((수련복, 교재지급)
4. 찾아오시는 길
1)서울 → 녹동(직통) - 강남터미널 호남선 오전 8시, 9시
2)서울 → 광주(고속) → 녹동(항구) / 서울 → 순천(기차) → 녹동(항구)
3)부산 → 대구, 진주, 마산 → 순천 → 녹동
☞ 녹동항에서 금진행 배를 타시기 바랍니다.(1시간 간격, 15분 거리)
※ 수련 당일 오후 5시까지 도착바람.
5. 회비 납부 온라인
■ 우체국: 501023-0039351-17 (일선) ■ 농협: 617073-52-068116 (일선)

주소 : 우)548-930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74
☎ 0666)843-8488 팩스 : 0666)842-7307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암 암주 일선 합장

철야 참선정진 법회

복잡한 현대생활의 피로를 벗고
자기 마음을
찾아 보지 않으시렵니까?

●일 시 : 매월 2번째 4번째
토요일 밤9시 - 일요일 05:00까지
●입회비 : 만원 (단 불교신자에 한합니다.)

참선에 관심있는
불자님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본사 화엄사 포교당
좋은절 선재정사
(전철3호선 구파발 삼송리역 농협대학 건너편)
전화 0344)962-6690 / 팩스 0344)967-1705